

##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의 장소감각\*

- 체험된 공간과 소설 속 공간의 의미 연관 -

유임하\*\*

### 차 례

1. 서론: 월북 이후 이태준의 중소체험의 장소감각
2. 경험된 공간과 새나라 건설의 향방: 중소체험과 탈식민 이후의 모색
  - 1) 해방 직후 이태준의 내면과 월북의 함의
  - 2) 소련 방문과 '제도의 승리'
  - 3) 중국기행과 선취된 미래, 국제주의적 연대
3. 중소 체험과 소설 속 공간의 의미 연관
  - 1) 새로운 공간 체험과 새나라 건설의 소설적 변주
  - 2) 「농토」와 「소련」이라는 장소성
  - 3) 「고귀한 사람들」, 국제주의적 연대와 고상한 리얼리즘
4. 결론: 혁명의 시간대와 이태준의 장소감각

### ■ 국문 요약

본 연구는 월북 이후 산출된 이태준의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경험된 공간', 곧 중소체험이 그의 소설과 어떤 공간으로 변주, 재현되었는가를 논의하였다. 이태준은 문학적 생애의 전환기마다 기행집을 남겼다. 그는 월북 이후 『소련기행』(1947), 『혁명절의 모스크바』(1950), 『중국기행-위대한 새 중국』(1952) 등을 썼다. 두 권의 소련기행집과 1권의 중국

\* 이 논문은 2013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13S1A5A2A01018787).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과정부 부교수

기행은 월북 초기와 작가로서의 삶이 막을 내리는 시기에 간행되었다는 의의가 있다.

해방 이후 이태준은 좌익진영에 가담하였다가 현실정치의 장으로 뛰어들어 새나라 건설에 동참한 경우지만, 그의 문학과 사상은 탈식민 이후 단일한 네이션-스테이트 수립을 '완전한 해방과 독립'의 과제로 삼았다. 그는 두 번에 걸친 소련방문에서 '제도의 승리'를 성취한 새로운 세계를 보았고, 다민족국가의 문화정책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또한 중국방문을 통해 국제주의의 연대의 필요성을 체감했다. 그는 중국 방문에서 구체제에서 해방되어 노예의 삶을 벗어나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계, 인민이 역사의 주역되는 미래의 국가상을 보았다. 이 글은 이 같은 중소체험이 그의 소설 「농토」와 「고귀한 사람들」에서 변주, 재현된 장소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주제어 : 이태준, 월북, 경험된 공간, 장소 감각(sense of place), 공간의 재현, 탈식민, 제도의 승리, 새나라 건설, 소련 기행, 중국 기행

## 1. 서론: 월북 이후 이태준의 중소체험과 장소감각

본 연구는 월북 이후 산출된 이태준의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경험된 공간', 곧 중소체험이 그의 소설과 어떤 공간으로 변주, 재현되었는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해방 이후 이태준이 감행한 소련 방문과 월북이라는 선택은 훗날의 문학적 행적을 고려할 때 단순히 남에서 북으로의 공간 이동과 선택만은 아니었다. 갑작스러운 그의 1차 소련 방문과 북한 체류는 남한 문학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는, 진보 진영에 가담하는 수준을 넘어 현실 정치에 대한 동참을 선언하고 실행에 옮겼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그의 사상적 전신(轉身)이 표면적으로는 단절된 것일지는 모르나 문학적 생애에 대한 통합적 관점을 배제한 채 '순수작가의 정치적 몰락'으로 귀결되는 것은 부당하다. 김재용의 지적처럼, 그러한 관점은 월북 이후 이태준이 추구했던 문학과 사상과 인식과 활동을 모두 정치적 억압이나 외적 요인으로 재단해 버리기 때문이다.

해방 이후(또는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에 대한 논의나 관심 대부분은 이데올로기적인 접근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그의 사상적 행로와 관련하여 민족/민족주의적 관점, 그의 정치적 선택에 대한 단절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룬다.<sup>1)</sup> 하지만, 이태준 문학이 가진 중의성을 고려할 때 그의 문학을 어떤 주어나 개념으로 포괄하기 곤란하다. 해방 직후부터 이태준의 문학 활동은 사회정치적 과제였던 민족국가 건설에 적극 가담하는 지식인의 실천이었고 사회주의적 근대화를 지향했던 북한 사회의 정치사회적 조건과 맞물려 대단히 복잡한 함의를 띤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북한에 체류하면서부터 그의 문학 활동은 1956년 자연주의자라는 비판과 함께 작가로서의 생명이 끝나기까지, 작가로서의 부침(浮沈)을 감안하면,

- 1) 기존 연구로는 피식민 주체가 탈식민 이후 자신의 식민지 기억을 재편하며 민족적 주체, 탈식민적 주체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모습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다. 테이도르 휴즈는 '해방 이후 남북한 문학을 빠르게 양극화된 냉전질서 안에서 분단된 민족 문학이 아닌, 냉전 문화의 산물과 교차하는 탈식민(post-colonial)의 문학으로 간주해야 한다.'('냉전 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해방 직후의 남북한 문학',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26~27쪽)라는 주장한다. 그의 논점은 해방 직후 남북한 문학에 대한 성격 규정이 특정한 위치에 따라 해석의 편차가 큰 현실에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이후 많은 진전이 있었다. 신행기('해방 이후의 이태준', 『상허학보』 5, 2000), 김재용(월북 이후 이태준의 문학활동과 '먼지'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 10, 1997), 강진호, 박진숙, 정중현, 권성우, 배개화 등의 논의가 있다. 김재용은 「먼지」를 발굴하여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의 일단을 복원했고, 중국기행인 『위대한 새중국』(국립출판사, 1951; 역락출판사, 2011 영인)을 발굴, 소개했다. 또한 새로 발굴된 이태준의 자료로는 『신(新)문장강화』(1952; 박진숙 편, 현대문학사, 2009)가 있다. 실증적 연구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작가의 내적 모색을 다룬 경우로 강진호(「한 근대주의자의 신념과 좌절」), 박현호(「역사의 변주, 왜곡의 증거-해방 이후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 4권, 깊은샘, 2001) 등이 있고, 최근 7권의 『이태준문학전집』(소명출판, 2015)이 간행되면서 많은 자료가 추가적으로 발굴되었다. 최근 이태준 연구로는 배개화의 작업이 두드러진다(「이태준: 해방기 중간과 문학자의 초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2, 한국현대문학회, 2010; 「문학의 희생」, 『한국현대문학연구』 3, 한국현대문학회, 2011; 「당, 수령, 그리고 애국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이태준, 최대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 등)

이 간접적인 접근방식이 오히려 해석의 지평을 확장하기에 좀더 타당해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방 직후 좌익 진영에 가담한 그의 선택이 자주적인 근대국가 수립과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절차였다는 점, 그렇다고 해서 북로당의 노선을 전적으로 추종한 것만도 아니었다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이러한 전제에 따라 진영론 시각을 일단 견어내면, 월북 이후 이태준의 문학과 실천이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응전한 유의미한 사례로서 통합적으로 살필 수 있다고 본다.<sup>2)</sup>

이태준은 중소 체험을 통해 소련과 중국으로부터 국제주의적 연대를 절감하였고, 이러한 태도를 작품 속에서 한반도 현실에 맞게 치환시키는 재현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소설에서 소련과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나 형상이 그리 빈번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도 이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작품에 재현된 평양과 서울, 38선 접경지대에 대한 특별한 장소성은, 기행집에서 발견되는 소련과 중국이라는 장소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을 지니고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월북 이후 이태준의 시공성은 중소체험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기억이라는 과거와 한반도 내부의 당대적인 국면에 한정되고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체험과 재현이라는 상호적 맥락에서 보면, 이 같은 ‘표면적 비연관성’이 간접적으로나마 사상 전환의 경과를 암시적이고 우회적일 뿐만 아니라 파편적이며 균열적이라는 의미가 된다.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의 파편적 징후와 균열이 가진 문제적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해당 시기에 발표된 텍스트를 ‘공간 감각(sense of place)’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독해, 해석하고자 한다. ‘장소감’으로도 번역되는 이 개념은, 무차별적이고 중립적인 장소가 개인의 특정한 경험과 가치 부여를 통해 창출되는 장소라는 공간에 깃든 독특한 감각<sup>3)</sup>을 주목

2) 이러한 관점은 유임하,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과 48년 질서」(『상허학보』 39, 상허학회, 2013)에서 제시한 바 있다.

하는 데 유용하다. 경험된 특정 공간에 대한 미적 태도를 포착하는 데 유용한 이 개념은,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에서 재현된 공간은 서울과 평양, 38선 접경지대(이밖에도 개성, 해주, 인천, 철원, 동두천 등이 거론될 만하다)에 대한 장소성의 의미를 되짚어볼 수 있는 해석의 지평을 제공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월북 이후 이태준의 문학텍스트를 중심으로 그의 중소 체험을 서술한 기행문들에서 나타나는 공간감각의 특질을 살펴보고, 이러한 감각이 월북 이후 창작된 소설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소련체험이 반영된 <농토>와 함께, 중국체험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고귀한 사람들>을 통해 경험된 공간과 재현된 공간과의 연관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 2. 경험된 공간과 새나라 건설의 향방: 중소체험과 탈식민 이후의 모색

### 1) 해방 직후 이태준의 내면과 월북의 함의

해방 이후 이태준은 사상적으로 놀랍도록 급격히 좌측으로 선회한다. 그의 사상 전환에 관해서는 더욱 섬세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나, 해방 직후부터 진보 진영에 적극 가담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그 내밀한 흔적이 바로 「해방 전후」에 녹아 있다.<sup>4)</sup> 증거가 바로 『소련기행』(1947.5)을

3) 이-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공역,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개정판, 20쪽 이하. 이-푸 투안은 인간의 공간 인식과 조직화는 특히 시각에 의존하며 소리는 공간 인식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표현해준다는 점과, 인간의 공간, 곧 인식된 공간이 “인간의 감각과 정신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상은 34쪽. 이태준의 소설이 체험에 근거해 있다는 점에서 이 글은 그의 여행체험과 소설 속 공간이 갖는 상관성을 ‘체험의 재현이자 극적인 재구조화’라는 관점에서 ‘경험된 공간’과 ‘재현된 미적 공간’이라는 도식화했다.

4) <해방 전후>에 대한 논의는 풍성하다. 분명한 것은, 이 텍스트가 제국의 이데올로기

비롯한, 『혁명절의 모스크바』(1950.3), 『중국기행-위대한 새 중국』(1952.4)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기행집들은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에서 소련과 중국의 문화적 경험을 통해 스스로 변화를 모색하는 사상적 정치문화적 시선과 행보를 담은 텍스트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공간체험을 담은 텍스트였다. 한 논자의 표현처럼, 이태준은 자신의 인생 전환기와 정치적 과도기에 기행집을 남긴 점<sup>5)</sup>을 감안할 때 『소련기행』과 『혁명절의 모스크바』, 『위대한 새 중국』 등, 이 세 권의 기행집에서 북한 정권 수립기에 현실정치의 장에서 활동했던 이태준의 문학적 사상적 전환을 확인해볼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들 기행집은 “이태준(문학-인용자)의 후반기 인생과 사상을 규정하는 원체험<sup>6)</sup>인 셈이다. 더구나, 중소체험을 통해 이태준이 생산한 공간성은 한반도에 관철된 세계 냉전구도 안에서 공소반공(恐蘇反共)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기획의 일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 냉전체제 속에 자신의 사상적 궤적을 재설정해 나가는 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어서 흥미롭다.

장편 <불사조>를 연재하던 1946년 7월 말, 돌연 연재를 중단한 뒤 8월 10일 조소문화협회 남측 위원 자격으로 평양을 출발하여 소련을 방문한다. 10월 17일 귀국길에 오른 뒤 그는 북한에 그대로 체류하였다. 이태준의 ‘소련방문’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탈식민 이후 관

---

기에서 벗어난 순간 절감한 새나라 건설의 시대과제에 대한 탈식민 이후 자기정체성을 재구성하는 면모를 잘 보여준다는 점이다. 정중현은, 이태준의 자기정체성 재구성 작업이 일제의 지배하에 살고 있지만 그 세계의 허위를 이미 간파했다는 것, “세계 바깥을 상상했다는 알리바이, 다만 그것을 전면화하지 못했던 것은 파시즘의 폭압 때문이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 입장이다. (정중현,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현대문학연구학회, 432쪽.)

- 5) 권성우, 「이태준 기행문 연구」,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2005, 188쪽.
- 6) 권성우는 상기 논문에서 해방 이전 이태준의 기행이 현실 환멸과 객관감이 두드러진다면, 해방 이후 기행문에서는 급격한 사상전환과 프로파간다의 세계로 진입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권성우, 같은 논문, 189쪽.)

철된 세계냉전구도 안에서 남북한사회가 남-남, 북-북, 남-북의 차원에서 친미반공/친소친공의 국가 수립을 둘러싸고 ‘소련’이라는 국가와 공간이 담론 장에서 서로 각축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sup>7)</sup> 이강국의 표현을 빌면, 이태준의 좌익 진영 가담은 해방 직후 ‘좌익 진영과 제휴한 거대한 수확’<sup>8)</sup>이었다. 하지만 이태준은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이라는 대의에 동참했으면서도 좌익의 무분별한 발호에는 비판적이었다.<sup>9)</sup> 그는 해방 이후 좌우 진영 간의 갈등을 두고 냉정을 유지하며 채취해야 할 새나라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관해 숙고했다. 그는 미소 강대국을 중심으로 한 조건에 대한 냉정한 진단과 함께 “모든 환상”, 곧 “인공이고 임정이고, 우익이고 좌익이고 자편도취의 환상, 감상, 이런 것을 깨끗이 청산하고 실제적인 견해와 행동을 하자”는 주문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일치시키지 않고서는 “우리의 독립이란 실제적으로 불가능”<sup>10)</sup>하다고 보았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는 현실정치의 장인 좌우 진영을 넘어선 내적 열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소련 방문은 좌우를 넘어선 ‘민족의 완전한 해방과 독립, 건국’을 위한 새로운 계기에 응답한 결행이었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7) 남한사회에서 ‘소련기행’과 ‘북조선기행’이 직접 반공주의와 관련하여 이데올로기적 경합을 벌이고 있고 있었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관해서는 이형선,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 『인문과학연구논총』 34-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8) 이강국, 「서」, 이태준, 『소련기행』, 북조선출판사, 1947, 3쪽.

9) <해방 전후>에서 이태준 자신이 보여준 좌익단체의 발호에 대한 부정적 관점은 ‘인공지지’ 현수막이 내걸린 일과 데모 대열에 소련국기가 뿌려진 돌발 사태에 대한 ‘현’의 태도에서 잘 확인되며, 이는 <열정과 지성>(『민성』 6, 1946. 4)에서 일관하고 있는 태도이다. 이 태도는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이태준의 관점이며, <해방 전후>의 ‘현’이 공유하고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10) 이태준, 『열정과 지성』, 같은 책, 8쪽. 이태준의 이러한 관점에 대해 김재용은, 미소의 역할을 조건으로 인식하면서 한반도 정세 속에 자중족중심주의자가 아니라 국제주의의 관점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김재용, 「동양주의에서 국제주의로」, 문학과사상연구회 편, 『이태준 문학의 재인식』, 소명출판, 2004, 163~164쪽 참조.)

## 2) 소련 방문과 ‘제도의 승리’

‘민족의 완전한 독립과 해방, 건국’이라는 이태준의 열망은 소련 방문을 거치면서 구체적인 형상을 띄기 시작한다. 그의 소련 방문은 갑작스러운 결행이었지만, 좀더 넓게 보면 북한사회의 소련 열풍<sup>11)</sup>을 남한으로 확장하기 위한, 조소문화 교류사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좌익진영에서는 이태준의 역량을 통해 일제가 유통시켜온 ‘공소반공’의 관념을 해방 이후 반전, 일소 시키고자 했다.<sup>12)</sup> 소련이라는 공간은 동서냉전체제에서 양립하는 두 축의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미군정하에서 좌익정파에 대한 억압적인 통치방식과 차별화된 새나라의 건설과정에 참조해야 할 선진국가였다.

여행의 출발과 함께, 이태준은 “낯은 세상에서 낯은 것 때문에 받던 오랜 동안의 노예생활에서 갓 풀린 나로서 이 소련에의 여행이란, 룡(籠) 속에서 나온 새의 처음 날르는 천공(天空)”<sup>13)</sup>이라고 표현했다. “농중(籠中)에서 나온 새의 실감”(〈첫날〉, 13쪽)은 탈식민 이후 맞이한 해방의 기쁨과 결부된 여행을 함축하는, 탈식민의 장소 감각에 해당한다. 소련은 미래에 건설해야 할 세계에 대한 ‘참조점’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낯고 악한 모든 것은 사라졌고 새 사람들의 새 생활, 새 관습 새 문화의 새 세계”(2쪽)에 해당한다. 이 ‘새것’에 대한 지칭과 소련사회 상찬은 구질서를 모두 낯은 것들로 대타화하는 한편, 새나라 건설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현실에서 지향한, 냉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회주의 선진국을 향한 벡터를 잘 보여준다. 비록 공식 일정에 따른 소련방문이었으나 이태준의 장소감각이 집중된 곳은 주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영역이었다.

11) 유입하, 「북한 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 조소문화 교류와 즈다노비즘, 변역된 냉전논리」,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7.

12) 이강국, 앞의 글, 4쪽.

13) 이태준, 『소련기행』, 북조선훈판사, 1947, 1~2쪽. 이하 본문에서는 쪽수만 기재함.

이태준은 레닌그라드 방어전의 체험을 담은 <밤과 낮으로>의 작가 시모노브와 대담을 나누면서(<세번째 모스크바>, 234쪽 이하) 소련의 작가동맹과 ‘노농 계층 출신’ 작가들의 특징을 확인하며 작가들이 산업부면과 접촉하며 실지 체험이 국가 생산면에 연결된 창작의 근원에 흥미로워한다. 또한 그는 순전한 사회단체인 작가동맹의 성격을 확인하며 고전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소비에트 문화정책에 대한 심대한 경의”(238쪽)를 표한다. 이는 북한정권수립 초기에 통용되었던 다양한 시각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했다.<sup>14)</sup>

이태준은 공식 일정에서 벗어나 소련 사회 곳곳을 관찰할 때조차 심미적인 태도를 취하며 감정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가 ‘붉은광장’에서 소련인들을 바라보며 이전의 그 어떤 여행에서도 찾을 수 없었던, 오랜 친구와 같은 감정으로 소련인들의 심성에 감격한다. 그는 여행 초반에 신병을 겪으며 자신을 성심껏 돌보아준 소련인 장교에게서 느낀 인간미를 좀더 확장시켜, 소련인이야말로 남녀와 노소와 계층을 막론하고 ‘요순 때 사람들’로 표현한다. 이태준의 이같은 어조는 일정 부분 감격벽과 과장을 담은 표현이지만, 공소반공을 넘어 ‘사회주의 대국’의 면모를 ‘심미화시킨’ 것에 가깝다는 점에서 ‘미학적 사회주의’ 또는 ‘심미적 사회주의’<sup>15)</sup>라고 부를 만하다.

두 번째 소련기행집인 『혁명절의 모스크바』는 북한정권 수립 후 10월 혁명 32주년 축하를 위한 소련방문사절단의 일원으로 소련을 방문한 뒤

14) 일본이나 독일이 적대국의 역사나 예술을 접근하지 못하게 한 반면, 세익스피어와 괴테와 발자크를 가르치며 “내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인류 전체에 해로울 것이면 이를 적으로서 용서치 않고, 비록 남의 속에 있는 것일지라도 인류 전체에 이로울 것이면 이를 힘써 보전하고 가꾸는” 소련문화정책을 가리켜 이태준이 “가장 진보된 정치”(238쪽)라고 규정한 것도 이같은 사회 분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북한정권수립기의 다양한 시각이 일원화되는 경로에 대한 논의는 유입하, 「북한초기문단과 ‘소련’이라는 참조점」, 앞의 논문 참조할 것.

15) 테드 휴즈,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3, 131쪽 이하.

기술한 텍스트이다. 이 기행집 역시 『소련기행』과 마찬가지로 순차적인 일정에 따라 기술되고 있으나, ‘조소친선’에 역점을 둔 것이 확연히 드러난다. 이는 북한정권 수립후인 1948년 10월부터 시작된 소련군 철수와 함께 더욱 고조된 조소친선의 분위기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이 기행집에서는 1946년 시점에서 당대의 사회상과 비교하며 소련사회가 발전한 면모에 주목하는 한편, 러시아 혁명사와 레닌, 스탈린에 대한 찬사를 피력하고 있다. 하바롭스크를 거쳐 치타시에 잠시 머무는 동안, 이태준은 그곳에서 만난 소련인들의 소탈함에 경탄한다. 우에 친선의 외교적 레토릭이라고 해도 그가 관찰한 소련의 문화시설과 문화제도에 찬탄은 다른 소련방문기와 다소 차별화되는 부분이다.<sup>16)</sup>

10월 혁명 32주년 기념 경축연예를 관람하는 이태준의 시선은 첫 번째 소련방문의 찬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련 문화정책의 특색’에 주목한다.<sup>17)</sup> 그에게 민족 축제는 고유한 민족적 특색을 간직한 다양성의 조화를 선진문화의 한 사례로서 소수민족 문화는 ‘민족 고유의 전통’으로부터 인류의 궁극적인 발전 목표이기도 한 평화와 문화에 합치된 상태이자 “세계 각국민족들이 머지않은 미래에 한데 어울려 꽃동산을 이룰 새 세계문화의 일면상”이라고 결론 내린다. 이태준은 경축연을 가리켜 “항구한 평화와 함께 마침내 도래하고야 말 인류 전체의 새 문화 새 세계문화의 찬란할 미래”(이상 46쪽)를 선취한 사례로 언급하고 있다.

첫 번째의 소련방문과 두 번째 소련방문의 가장 큰 차별점은 이태준은 10월 혁명의 계승의지를 피력하는 이데올로기적 편향이 좀더 선명해졌다는 것이고, 소련사회가 인류사회에서 가장 선진적이라는 것, 경제적 군사적 문화예술적으로 소련이 우월한 사회를 인정한 데 있다. 이렇게, 『혁명

16) 배개화,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현대문학연구』 46, 현대문학회, 2015, 160~175쪽 참조.

17) 이태준, 『혁명절의 모스크바』, 문화전선사, 1950, 46쪽. 이하 본문에서는 쪽수만 기재함.

절의 모스크바』에서는 『소련기행』에서 접한 공소친공의 의지에서 탈피하여 새나라 건설을 위한 문화정책의 윤곽을 분명히 하고 있다.

### 3) 중국기행과 선취된 미래, 국제주의적 연대

세 번째 기행집 『중국기행-위대한 새 중국』(국립출판사, 1952)은 1951년 9월, 관례단의 일원으로 중국 북경에서 건국 2주년 행사를 참관하고, 세계평화옹호대회와 항미원조 참전 1주년 기념대회를 참석한 뒤 중국정부의 지원으로 중국 각지를 2개월가량 여행한 기록이다. 13장으로 구성된 여정은 북경과 만리장성 탐방, 황하를 건너 상해와 항주, 남경을 거쳐 천진으로 올라와 북만주 하얼빈을 거쳐 귀국길에 오르는 시간적 행로를 따르고 있다. 기행집에 나타난 ‘중국’이라는 세계는 6.25전쟁의 발발과 함께 ‘항미원조(抗美援朝)’를 표방하며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북한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혈맹으로 기술된다. 조중 간의 교류가 지닌 관례<sup>18)</sup>와는 별도로, 이태준은 전시 기간이었던 1951년 중국을 방문하면서 기행문을 썼다. 그는 문학자로서는 1950년 1월에 직능대표로 중국을 방문한 이복명 이후 두 번째였다.

이태준은 출범한지 2년이 된 신생국가인 중국으로부터, 동양의 오랜 전통을 간직한 구체제에서 해방된 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새 중국에서 많은 것을 보았다.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까지 많은 새것을 보았다. 그 모든 새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며 항미원조를 위한 무궁한 역량의 원천임을 보았다. 중국인민의 근 백 년래 혁명투쟁은 중국

18) 중국 건국 직후인 1949년 11월 16일부터 12월 1일까지 북경에서 개최된 ‘아세아 및 대양주 제국 직업동맹대회’가 그 시발점이었던 중국 방문에서 북한 인사들은 ‘해방된 중국의 새로운 면모’와 ‘노동계급을 선두로 한 중국인민들의 생기 있는 건설의욕’을 접했다.(박원술, 「중국노동자들의 증산투쟁」, 『노동자』 3-1(1950.1.25), 정문상, 「냉전기 북한의 중국 인식」,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169~193쪽 재인용.)

공산당과 모택동 주석의 탁월한 영도 하에 저 러시아의 위대한 10월혁명의 승리 다음의 큰 인류적 승리로 종결된 것이며 그 승리의 결과인 새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인민의 행복만을 경륜하는 나라가 아님을 보았다. 위대한 소련이 전세계인민의 해방과 평화의 불패의 기지이며 보루였는데 그 기지와 보루는 다시 이 휘황한 새 중국의 플러스로 인하여 더욱 확고하며 더욱 부동하는 것으로 된 것이다. 한 걸음 좁혀 우리 아세아에 있어 그 의의는 더 크고 더 직접적인 것이니 이미 우리 조국해방전쟁에 있어 중국인민의 병견작전은 조선의 통일 독립과 아세아의 공고한 안전을 위하여 철벽과 같은 엄연한 승리의 담보로 되는 것이다./ 오늘 조선과 중국의 단결은 인민의 단결이다. 조중 인민의 단결은 세계인민의 제일선의 단결인 것이다./ 조선인민의 조국해방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뿐 아니라 세계 평화 확립에 크게 공헌할 것이다.”(147~148쪽)

위의 언급에서 드러나는 이태준의 문제적 관점은 두 가지이다. 이태준이 본 체험 내용은 신생국가 중국에서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에 이르는 수많은 새것’이었다. 그 ‘새것’의 모든 것은 새로 출범한 국가로서의 역량이자 항미원조의 원천을 이루는 것이다. 두번째로 그의 중국이라는 공간 체험은 조중 친선을 바탕으로 소련-중국-북한으로 이어지는 사회주의 블록에 대한 재확인과 함께, 100년에 걸친 혁명 투쟁의 중국에 맞이한 새로운 세계, 곧 새 나라 건설에 대한 생생한 가치를 담은 풍경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의 10월혁명 이후 전 세계 인민의 해방과 평화를 지키는 기지이자 보루로 새롭게 부상한 중국에서 이태준은 ‘모든 새것’, 곧 구체제의 억압과 노예적 삶을 벗어나 항미원조를 통해 ‘조국해방전쟁’의 병견작전을 수행하며 공동의 승리를 쟁취해내는 국제주의적 연대와, 그러한 역사를 견인하는 인민 주체의 가능성을 함께 살피고 있다. 6.25전쟁의 시기라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기행집에서는 영미불일(英美佛日)을 비롯한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배 비판과 그 폐해를 지적하는 격앙된 어조가 두드러진다. 전시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그리 이상하지 않다.

이태준은 중국의 현실에서 과거 구체제에서는 억압당하던 인민들의 노예적 삶이 해방되고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관점을 피력했다. 만리장성과 자금성, 이화원, 태산 등지를 둘러보며 구체제의 유물들이 인민의 위락시설로 바뀐 현실에 남다른 감회를 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인민들의 경제적 삶에 대한 주목과 날카로운 관찰은 봉건적인 구체제와 식민 질서에서 해방된 세계, 곧 완전한 해방을 이룬 세계의 추이에 대한 관심이었다고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상해에서 전람회를 둘러보며 토지개혁 이후의 중국의 변화와 새 혼인법으로 인한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도 하고(75~76, 91~98쪽). 토지개혁이 이룩한 혁명적 변화에 주목하는 것(95~96쪽) 등은 모두 중국의 변화된 제도에 따른 인민들의 변화된 삶의 세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기행집에는 귀국길에 오르면서 체험한, 인상 깊은 일화 하나가 기술되어 있다. 식당 칸을 나와 지난 길에 삼등 차간에 앉은 이태준은 병색이 완연한 여자 승객을 설득하는 여성 위생원(승무원)의 친절한 면모를 유심히 관찰한다. 독방으로 안내하려는 자신에게 전염병 환자 취급에 불쾌해하며 거절하는 것을 강요하지 않고 담배연기 가득한 객실을 향해 금연을 안내한다.

그는 전체 승객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 차간은 담배 안 피는 차간입니다. 미안합니다만 담배 피실 분은 다음 차간들로 옮겨주십시오.” 하였다. 모자 차간이 따로 있고 담배 안 피는 승객을 위한 차간이 따로 있었다. 위생원은 아까 그 여승객 앞에서도 다시 발을 멈추었다. 아까보다 더 다정한 어조로 물었다./ “내 의견에 아직 동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어디까지 웃는 낯으로 친절한 말씨였다. 여자승객은 쾌히 보통이를 들고 일어섰고 위생원은 그의 짐을 자기가 들어주며 앞을 섰다. 모두가 의논성 있고 성의 있게 진행된다. 나는 새 중국에 와 40여 일 동안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에도 명령조의 거센 소리가 오고가는 것을 한 번도 듣지 못하였다.(146~147쪽)

이태준이 주목하는, 정성과 인내로 무장한 친절함이 일군 작은 성과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새 중국의 역량을 함축하는 이 장면은, 단적으로 앞서 거론한 『소련기행』의 ‘심미적 사회주의’에 비견되는 하나의 단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구체제 아래서 억압당해온 인민들의 노예적 삶이 해방되고 난 뒤 역사의 주체로 등장한 인민의 인간다운 삶의 의의를 강조하는 한편, 서구 열강들을 축출하고 부패한 국민당 정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새 중국의 당당하고 평화로운 삶의 국면이 잘 드러나 있는 셈이다. 이해와 권고와 설득을 통해 인민의 삶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향상시키는 문화의 면모는 그가 중국 각지를 여행하면서 갖는 찬탄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상해와 남경에서 신문을 사서 읽으면서 언문정리운동에 대한 추이와 인민들의 호응을 살피기도 한다. 건국 이후 중국이 이룬 3년간 이룬 정치경제적 성과를, 북경 외에도 상해, 남경, 소주, 대련 등 여러 도시에서 확인한다. 이태준의 중국체험은 여러 도시에 접한, 수많은 문화재들이 소수의 권력자들이 향유하던 시설에서 인민의 품으로 돌아온 현실, 곧 ‘인민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모든 주권이 인민의 소유가 된 세계에 대한 공간인식으로 모아진다. 이는 반봉건과 반식민, 반제국주의 투쟁이 승리로 마무리된 후 실현된 세계라는 관념을 형성한다. 이 세계야말로 ‘조국해방전쟁’의 승리와 함께 수립해야 할 자주적인 민족국가에 가깝다.

### 3. 중소 체험과 소설 속 공간의 의미 연관

#### 1) 새로운 공간 체험과 새나라 건설의 소설적 변주

앞 장에서 언급한 세 권의 기행집에서도 가장 폭발력이 크고 해방공간의 함의를 가진 텍스트는 단연 『소련기행』이다. 그의 소련 방문은 월북과

북한체제의 선택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고착화되기 시작한 분단의 현실을 넘어서려는 정치적 선택의 하나였음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는 해방 이후 새나라 건설이라는 문제를, 누구를 위한 국가,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를 고심했다. 한반도에 관철된 냉전구도 속에서 자신의 소련방문이 바로 이같은 문제를 확인해볼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고 선뜻 결행한 것이었다.

『소련기행』에서 보여준 이태준의 태도가 소련사회에 대한 한껏 고양된 인상이라고 해도, 시베리아 평원을 지나는 기차 안에서, 흑한의 황무지가 아닌 무수한 공장지대와 국영농장들의 평화로운 정경을 바라보는 그의 모습에서는 새나라 건설의 실체가 충분히 짐작된다. 그것은 어떤 모습의 국가인가였다. 『소련기행』에 담긴 주조가 소련 사회에 대한 인상기라고는 해도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위에 낙토를 일구어낸 원천이 무엇이었는가에 질의와 서로 통한다. 이태준은 “자원개발과 공업시설이 전초로서 새 세계의 문화는 이 끝없는 황원을 끝없이 낙토화하며 있는”(277쪽) 동력을 “제도의 승리”(297쪽)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해방된 조선의 앞날에 이룩할 방책은 ‘제도의 승리’에 있다고 확신했다.<sup>19)</sup> 제도 승리를 위한 기반으로, 그는 ‘봉건유제 청산’과 ‘일체잔재의 일소’, ‘국수주의의 배격’이라는 세 가지 대원칙을 제시했다(279~280쪽).

이 대원칙은 단순히 탈식민으로만 그치지 않고, 협애한 민족주의를 넘어 국제주의적 연대로 확장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수주의의 배격을 언급하면서 그는, 자민족중심주의가 신비화되면 그것이 파시즘으로 변질된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그런 맥락에서 이태준은, 계급 평등을 통한 봉건유제의 극복, 일체 잔재의 일소, 편협한 민족주의를 넘어 평화 지향의 새나라 건설이 인류사회에 필요한 완전한 해방이라고 생각했다. 해방공간에서 좌우의 진영에서 전유하는 방식보다도 파시즘을 넘어 약소민

19) 신형기 역시 해방기 이태준이 ‘제도’에 주목한 것을 언급한 바 있다. 『해방 이후의 이태준』, 『상허학보』 5집, 상허학회, 2000, 73쪽.

족에 대한 평등과 조화를 꿈꾸는 ‘평등’의 문화정책과 연관짓는 방식은 소련 방문에서 구성된 국가상의 하나였다. 그런 점에서 『소련기행』 말미에 담긴 25원동군 사령관 슈티코프 대장의 발언은 간단치 않은 함의를 가지고 있다. 슈티코프 대장은 마지막 만찬에서, “언어와 문자와 풍습과 민족이 단일한 조선이란, 소련에 비겨 건국이 얼마나 쉬울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오셨느냐”는 묻고 있는데, 그는 “조선은 조선인의 조선이 되어야 합니다.”(282쪽)라고 발언한다. 이 발언이야말로 소련 방문에서 얻은 결론이자 사상적 선회를 거친 이태준에게 새로운 신념의 중핵을 이룬다. 그 결과 그는 제도 승리를 통한 자주적인 민족국가 건설에 매진할 동력으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월북 이후 이태준의 문학에서 소련 방문에서 얻은 체험을 소설 세계에서는 전면적으로 재현하지 못했다. 거기에는 사상적 전신에 걸맞는 창작조건의 불비함도 한몫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그가 접한 소련의 ‘문학예술 전반의 제도 승리’가 혁명과 전쟁으로 치달아간 한반도의 급박한 분단 현실에서는 시기상조였기 때문이다.<sup>20)</sup> 소련에서 얻은 제도 개혁이 북한정권 수립기에 민주개혁을 통해 속속 가시화되고 있었다.<sup>21)</sup> 또한

20) 월북 이후 이태준의 소설이 중소체험에서 얻은 공간 경험은 국제주의적 연대의 기초 위에서 일제 유제를 ‘제도개혁’을 통해 타파하고 계급적 평등을 성취한 국가 건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지향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같은 이상적 전망이 퇴조하면서 월북 이후 이태준의 소설이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은 1948년 남북한 정권 수립기 전후에 발표된 <첫전투>(1948.12)에서부터이다. 소설의 제목처럼 이태준은 ‘첫전투’에 가담한 소설 주인공을 등장시켜 38선 부근에서 빈발하기 시작한 ‘내전적 상황’을 다루기 시작한다. 이후 그의 소설에서는 고조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반영한 격양된 어조가 소설세계 전반을 지배한다.(유임하,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과 48년질서」, 『상허학보』 39, 상허학회, 2013 참조.)

21) 정권수립기 북한사회의 활력이 남한과 격차를 보이는 것에 대한 양가적 감정이 일어나는 지점이 <먼지>(1950.3)의 세계이다. <먼지>의 세계가 제도개혁으로 경제적 성과를 어느 정도 이룬 북한과, 이와 대비되는 남한의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단일한 국가 건설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가치를 폐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는, 중간과의 고통스러운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유임하, 위의 논문 참조.

반(半) 백년의 혁명 끝에 건국된 신생국가인 중국의 현실조차 ‘조국해방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서는 참조할 미래의 현실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소련과 중국에서 체험된 공간이 구체화된 경우가 부재하는 것만은 아니다. 중편 <농토>와 <고귀한 사람들> (중국)에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소체험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 2) <농토>와 ‘소련’이라는 장소성

소련 방문 후 처음 창작한 『농토』에서는 억쇠 부자의 계급적 각성과정을 주된 서사로 삼고 있다. 억쇠가 지식인 출신 농민인 성필과 택길을 상면하는 것이 8장이라는 점에서, 작품의 비중은 억쇠의 모친 ‘팔월’의 기구한 운명과 죽음, 이후 억쇠 부자가 작인으로 살아가며 겪게 되는 동척의 식민지 수탈경제 등 식민지 유제를 절감하게 만드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소설적 재현의 핵심이 식민지 수탈경제의 참상을 체험하는 즉자성을 벗어나 농민의 성장에 이루는 대타화를 통해 일체에 대한 저항과 토지개혁의 주체로 거듭나는 것임을 시사해준다.

그러나 작품의 정점에서, 소작쟁의 모의 장면에서 억쇠의 계급적 각성을 배치한 점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태준 자신이 체험한 공간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다.

“(.....) 쏘련을 보시오. 여러분은 모르고 있으리다만 거기서는 땅은 모두 농사짓는 사람만 갖게 된 거요. 땅을 차지허구 농군들이 지어는 농사를 들어다가 저희만 호의호식하던 불한당 지주떼들은 거기선 다 없어진 거요. (.....) 그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농민들이 일어나며 있구,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 농민들의 옳고 떳떳한 요구가 자꼬 실현되며 있는 거요.” (.....) 그러나 이런 발전이 절로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인간의 다대수요 이런 악제도 때문에 가장 피해자들인 노동자와 농민이 단결해 일어나야 그 발전이 빨리된다는 것, 그리고 (.....) 내 행복을 짓밟는 놈은

털끝만치도 아침은커녕 도리어 털끝만치도 용서 없이 정정당당하게 미워하고 충고 칼에라도 대항하고 싸워야 우서 그게 사람이요 그게 사람의 사는 거며 이런 사람다운 산 사람이 자꼬 늘어나가야 악한 놈들이 잡은 권력이나 제도가 빨리 무너져 나갈 것이라 했다.(이태준, 『농토』, 로동당출판사, 1947, 108~110쪽)

8장에서 성필과 함께 등장한 ‘낮선 인물’의 입을 빌어 언급되는 ‘소련’은 농노해방과 토지개혁을 실시한 세계이다. 소작쟁의를 모의하는 사회주의자의 연설에서 소개된 소련은 ‘사회주의 혁명이 실현된 노동자 농민의 세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태준이 계급적 저항을 언급한 대목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해볼 만하지만, 성필과 택근을 비롯한 이들의 회합 안에 배석한 역쇠의 계급적 각성의 발화점으로 ‘소련’이라는 공간성이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누군가의 밀고 때문에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낮선 사람’의 연설은 중단되고 모두 검거되고 말지만, ‘세상엔 우리편을 들어 소 귀에 경을 읽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생각하며 낮선 사회주의자와 성필에 대한 역쇠의 유대감은 한층 깊어진다. 사회주의에 대한 연대감과 함께 생성된 역쇠의 계급적 각성은 ‘노동자 농민의 대단결과 그로 인한 사회 발전’ ‘행복을 짓밟는 이들에 대한 증오와 무력 저항’이 ‘악한 놈들이 잡은 권력이나 제도가 빨리 무너져나갈 것’이라는, ‘낮선 사람’의 발언을 매개로 삼는다. 한편, 역쇠의 각성은 감화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징역 간 성필을 대신해 농삿일을 대신해 주려는 실천적 변화로 이어진다. 그런 점에서 역쇠의 각성이 처음 점화되는 이 대목이야말로 작품 전체에서 가장 고조된 극적 전환점에 해당한다.

역쇠는 13장에서 곡산땅 깊은 산골 광산에서 버럭짐을 지고 있다가 해방을 맞는다. 14장에서는 해방과 함께 들어온 소련군대에 대한 풍문을 들어온 가재울 사람들이 소련군인을 처음 대면한다. 성필은 소련군인과 악수를 나누고 “쏘련군대 만세!”를 선창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역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소련에 대한 언급을 이어간다.

“(……)해방만 됐다구 다 된 게 아니요, 모르긴 해도 조선독립을 좋아하는 하면서도 역시 조선 안에선 같은 동포끼리 그전에 저들 잘 살던 버릇으로 또 한두 녀석이 여러 백천 동포를 부리면서 살어볼려구 덤빌 거요. 쏘련같은 만민평등으로 사는 나라는 조선이 그런 불평등한 나라로 떨어지길 바라지 않을 거구, 또 우리들부터가 다신 하두 녀석에게 종살이가 아니라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사는 정말 사람마다가 제 권리와 제 자유로 발전하면서 사는 그런 조선을 세우도록 힘써야 할 거요.(……)” (『농토』, 161~162쪽)

인용 대목에서 보듯, <농토>에서는 경험된 공간으로서의 소련 이미지가 ‘해방자’ ‘은인’으로 되뇌는 수준을 넘어 노동자와 농민의 세계를 만드는 참된 원조국가로 그려지고 있다. 요컨대 해방과 완전한 독립이 시대의 과제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토지개혁 이후 변전된 세계를 중점적으로 그리는 방식을 취하지 않은 것은 그에 관한 이해와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토지개혁법령이 시행되기 직전, 도꾸지 영감의 귀환과 농토 매매의 수작, 남한에 대한 풍문 등, 토지개혁을 전후로 한 시기의 사회적 실상을 담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 말미에서 역쉬는 토지개혁의 의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층 성장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sup>22)</sup>

소련체험을 소설 공간 안에서 재현한 사레인 <농토>는 월북을 결행한 이태준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처음 창작한 텍스트였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농토>가 ‘공간의 의도적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사상적 전환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징표임을 말해준다. 소련 방문을 통해 얻은 ‘제도 승리’가 소설의 공간에서 토지개혁으로 변주, 재현된다는 것은, 토지개혁의 파급효과가 지닌 전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개연성과

22) “쏘련군대와 김일성장군 덕에 먼저 된 여기 토지개혁은 우리가 철벽처럼 지켜야 할 거구 아직 안 되구 있는 남조선을 위해선 여기처럼 되도록 우리가 밀구 나가야 하는 거요! 저만 잘 사는 지주 노릇을 그에 해보려는 녀석들 최후의 한놈까지 발붙일 한 퍼기 땅이 남아 있지 못할 때까지…….”(『농토』, 앞의 책, 180쪽)

현실성을 동시에 성취했음을 뜻한다. 토지개혁은 북한 정권수립기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민주개혁 조치의 꽃에 해당하는데, 봉건 및 식민의 유제와의 단절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지지계층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이 제도는 충분히 ‘승리의 조건’을 구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소련이라는 장소성은 바로 역외 부자의 기나긴 식민 수탈경제의 토대에서 계급적 조건을 자각해 나가는 지향의 사상적 원점으로 작동한다. 이때 이태준은 ‘소련’을 심상 지리로 호명해낸 것이 아니라 제도를 쟁취한 네이션-스테이트로 지목하고 있음을 강조해줄 필요가 있다. 풍문이 아닌 역사적 사례로 거론된, ‘소련의 농노해방이라는 제도적 승리’는 이태준의 관점에서 보면 국수주의적 민족주의의 범주에서 벗어나 제도화를 시행한 북한사회에 대한 체제 우위를 승인한 구체적인 예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면, ‘소련의 장소성’은 월북 이후 이태준이 낭만적 현실인식의 차원을 넘어 속속 전개되는 북한의 정권수립에 적극 가담한 현실 정치의 국면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도 승리’의 당대 서사로 재현해낸 사례였던 것이다.

### 3) <고귀한 사람들>, 국제주의적 연대와 고상한 리얼리즘

<고귀한 사람들>은 『고향길』(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 문화부, 1952)에 수록된 작품이다. 이 작품은 게재 잡지가 확인되지는 않지만, 창작일자가 1951년 5월 15일로 명기돼 있어서 중국을 방문하기 이전에 창작된 경우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작품은 이미 1950년 9월 압록강 도하를 시작으로 참전한 인민군을 소재로 혈맹의 조중 관계를 서사화했다는 점에서, 중국 방문에 앞서 형성된 국제주의적 연대에 대한 이태준의 조중관념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선취한, 복합적인 연관의 사례에 해당한다.

인민군 전사 박오철은 정찰작전 중에 빈사상태에 있던 중국 인민군 병사인 ‘진평수’를 야전병원에서 무사히 후송한다. 하지만 박오철은 자신도 작

전중에 무릎 관통상을 입어 진평수가 입원한 야전병원으로 후송된다. 박 오철은 야전병원에서 생기발랄하고 엄격한 간호장 김옥실을 만난다. 김옥실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진평수를 극진히 간호하며 같은 혈액형인 까닭에게 그에게 몇 번이나 수혈을 하며 간호에 열중한다. 하지만 진평수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다. 김옥실은 진평수를 후송시킨 박오철에게 중국 내전의 마지막 단계였던 ‘남하전역’<sup>23)</sup> 당시 진평수와의 각별한 인연을 회상하는 한편, 진평수의 곁에서 중국노래를 불러가며 그의 병세 회복을 간절히 염원한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미군기 공습을 받자 불타오르는 막사 안으로 뛰어들어 김옥실을 진평수를 구해내고 정작 자신은 전사하고 만다. 압록강 근처에 자리한 박오철의 시점에서 이 작품은 중국 인민군 전사인 진평수와의 대화가 가능한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태준은 중국 최근세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의 세부 열개를 구축해 놓고 있다. 그는, 삼대 남하전역의 마지막 전투에서 중국인민해방군 위생병으로 활약하던 김옥실을 내세운 서사 구조에서나 개연성, 필진성까지도 공들인 흔적이 역력하다. 남하전역 당시 위독한 군관과 같은 혈액형이었던 김옥실은 과로한 나머지 수혈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대신 수혈에 차렷했던 시골 청년 진평수와의 각별한 인연을 매개로 삼고, 김옥실을 뒤따라 ‘항미원조’에 참전한 진평수가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놓이자 그에게 몇 번이나 수혈하는 사건 설정은, 6.25전쟁을 소재로 한 이 작품에서는 국제주의적

23) 1945년 일본의 항복과 함께 시작된 2차 국공내전에서 임표는 일본 관동군의 무장해제후 70만 동북군을 창설하여 이들을 이끌고, 1948년 9월 요진전역에서 만주에 주둔한 국민당군 55만 명을 섬멸하고, 같은 해 10월 회해전역(淮海戰役)에서도 서주(徐州)에 본부를 둔 60만 국민당군대를 궤멸시킨 뒤 그 여세를 몰아 1948년 11월 평진전역(平津戰役)에서 부작위(傅作義)가 이끌던 국민당군대를 섬멸한다. 그 후 공산당 지도부가 북경에 입성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다. ‘남하전역’에 대한 이태준의 중국 이해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이해 수준은 식민지 시기부터 축적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예민하고 깊이까지도 확보하고 있다.

연대를 넘어 인류에 차원으로 승화시킨 혈맹의 조중 관계를 부각시키는 극적이고 정교적 장치의 효과로 이어진다.

의식에서 깨어난 진평수가, 중국말을 할 줄 아는 박오철에게 자신을 찾아낸 경과와 의식불명의 상태를 캐묻는다. 그는 ‘누님’인 김옥실을 만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박오철에게 피력하며 대화를 나눈다.

“참말이지 성스럽도록, 훌륭한 여자라고! 내 인제 만나면 꼭 동지한테 소개하리다. 성스럽구말구! 나는 그때 조선사람인 그 누님 때문에 우리 중국 인민해방군을 또 당을 비로소 이해하게 됐단 말이요! 그 어쩐다구 남의 나라 사내사람들 똥오줌을 받아낸다, 어쩐다구 이틀 사흘씩 밥을 새가며 간병을 하며, 어쩐다구 남의 숨지는 꼴을 보며, 남의 구신 송장들을 제 육친의 시체처럼 거리낌없이 다루며…… 대체 그런 애정, 그런 헌신성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나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요!…… 나는 거기서 깨달았소! 사람이란 얼마든지 고귀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나는 거기서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걸 알게 됐단 말이요! 우리 싸움, 우리 피가 우리 중국이나 당신네 조선만을 위한 것이 아닌, 더 크고 더 거룩한 것인 걸 그 누님을 안 발연으로 깨달았던 말이요!”/ “그건 훌륭한 인연이었구려! 동무들은 또 오늘 우리 조선에서 그렇지 않소? 동무들은 전쟁으로 우리를 돕는 것은 물론, 슬한 조선사람들이 동무들 때문에 또 고상한 국제주의로 무장되며 있는 거요! 앞으로 우리 시대는 진정 평화와 행복의 세상일 거요!”(「고귀한 사람들」, 『고향길』, 47~48쪽)

진평수의 입으로 서술되는 ‘고귀한 사람들’의 면모는, 중국혁명에 투신한 재중 조선인들의 국제주의적 연대라는 문제를 간호장 김옥실 중심으로 초점화되고, 그것이 다시 진평수에게 감화, 확산되면서 박오철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 이중의 순환 구조야말로 ‘항미원조(抗美援朝)’를 가담한 조중관계의 혈맹적 친연성을 적실하게 보여주는 이태준의 문학적 역량이 잘 발휘된 경우이다. ‘중국’에 대한 이태준의 장소 감각은 중국해방에 기여한 조선인들의 헌신과 희생이 중국인들의, 국제주의적 연대에 입각한

형제국가로서의 면모로 귀결된다. 이러한 서사적 국면은 진평수와 박오철의 관계가 지리적 조건을 넘어선 정치외교적 우애의 차원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재중조선인들의 인민군 편입과 자원입대, 항미원조전쟁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원입대라는 현실에 근거해 있음을 말해준다. 또한 조중 친선과 유대가 피를 나눈 형제국가라는, 그의 『중국 기행』에서 접할 수 있는 전상자 가족에 대한 곡진한 위로와 감동은 허구가 아닌, <고귀한 사람들>에서 선보인 바 있다.

<고귀한 사람들>은 <먼지> 이후 실질적으로는 월북 이후 이태준의 소설이 단순히 정치적 판단에 근거한 수준에 그친다는 ‘낭만적 결행과 문학적 희생’의 맥락을 넘어서는 함의를 가진 텍스트이다. 비록 소련 방문과 문화적 체험에서 뿌리 내린 문화예술에 대한 심미화된 현실사회주의의 관점과, 이로부터 추출해낸 ‘제도 승리’가 어떻게 조선이라는 로컬리티에 적용될 것인가를 보여주하고자 한 <농토>의 세계에서 웅숭깊은 탐색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조국해방전쟁’에 가담한 ‘항미원조’의 전사와 조중연대를 맺은 재중 조선인 출신 여성전사의 희생을 통해 국제주의적 연대와 함께 인류애를 담은 서사로 확장되는 측면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거기에서 중소체험이 소설의 공간으로 재현되는 순탄한 절차를 거친 게 아니었으나, ‘중국’이라는 장소성이 가진 지정학적 조건과 역사적 주체들의 등장에 대한 재현의 사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모로 의미가 있다. 첫째, 이태준의 중소체험과 관련해서 이들 작품이 가진 의의는 이상화된 세계가 아니라 쟁취되어야 할 미래, 새국가 건설의 구체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지정학적 참조틀로 호출, 재현되었음을 보여준다. 둘째, 이들 작품 외에는 중소체험이 공간의 소설적 재현으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이것은 이태준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혁명과 전쟁의 급박한 현실에서 통찰과 숙성에 필요한 여건이 불비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귀한 사람들」은 북한 초기문학에서 ‘고상한 리얼리즘’의 성공적인 사례이자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조화를 이룬 사례’로 거론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 작품의 상과는 김옥실의 죽음과 인민군 병사의 부상을 빌미로 삼아 ‘공화국의 모욕’을 일삼는 ‘자연주의의 폐단’으로 비판받으며 문학사에서 매도되고 만다. 하지만, 이 작품은, 중국기행집에 기술된, 참전 부상병이나 참전 병사 가족에 대한 감사와 조중 혈맹관계에 대한 언급에서 보듯, 오래지않아 쟁취할 계급 평등의 세상, 인민이 역사의 주역으로 등장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시선을 선취한 경우라는 점에서, 국제주의의 연대를 넘어 인류애로 칭송받음직한 ‘심미화된 사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준다. 이런 맥락에서 전사한 간호장 ‘김옥실’의 헌신과 열정과 인간에는 ‘중국’이라는 장소성을 선취하며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는, 국제주의에 입각한 고귀한 연대를 보여준 ‘고상한 리얼리즘’의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거론될 만하다.

#### 4. 결론: 혁명의 시간대와 이태준의 장소감각

해방 이후 급격하게 이태준 문학은 현실정치의 장 안에서 좌익 진영으로 이행한다.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그가, 월북 이후 1950년대 중반 이후 문학 장에서 사라지지만, 탈식민 이후 그가 추구한 문학적 사상적 가치의 재발견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게 이 글의 문제의식이었다. 그가 두 번의 소련 방문과 한 번의 중국방문 이후 남긴 세 권의 기행문은 문학적 분기점에서 쓰인 텍스트였음을 상기해 보면 더욱 그러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혁명의 시간대를 가로지른 중소체험과 관련한 이태준의 공간감각에 주목했다. 이태준은 ‘제도 개혁’, ‘국제주의적 연대’ ‘인민이 역사의 주역’이 되는 새나라 건설을 꿈꾸었고, 그것은 중국과 소련 방문을 통한 ‘장소의 발견과 생산’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에 해당한다. 이 글에서는 그의 ‘공간의 발견과 생산’이 변주, 재현된 소설적 사례로 <농토>와 <고귀한 사람들>을 꼽고, 이들 작품을 검토하였다.

<농토>의 경우, 역외 부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식민지 수탈 계급에 대한 이태준의 형상화는 시공간의 재배치를 통해 소련이라는 장소를 ‘노동자와 농민이 해방된 세계’로 전유하는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작품은, 해방 직후 북한사회에서 소련을 해방의 은인이자 민주개혁을 후원하는 원조자로 전경화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의 사상적 전환은 이데올로기적 전환보다 공간적 연관을 통해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의 지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었다. <고귀한 사람들> 또한 이같은 공간성의 해명에서 중요한 함의를 가진 텍스트이다. 이 텍스트는 중국 방문 이전에 창작되었으나 『중국기행-위대한 새중국』의 시선을 선취한 경우로서 1950년대 초반 이태준이 ‘고상한 사실주의 기풍’에 근거하여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한 중국인민군 병사를 소재로 삼아 조중 혈맹관계와 국제주의적 연대, 인류애의 지고한 가치를 추출하고 있는 점은 매우 이채롭다.

그러나 <고귀한 사람들>에서 보듯, 중국방문에서 체감한 ‘국제주의적 연대’와 ‘고상한 리얼리즘’의 차원은 문학적으로 더욱 확장시킬 여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전쟁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더 이상 꽃피지 못한다. 소련 방문에서 얻은 체험이 <농토> 이후 문맹퇴치운동과 인민대중의 계도를 보여준 <호랑이할머니>와 같은 사례로 변주되고, 남북에 고조되는 정치경제적 격차와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인정하면서도 단일한 민족국가 건설의 꿈이 사라지는 현실을 서사화한 <먼지>로 전개된 점을 감안해도 그러하다. 또한, 전쟁의 기간에 창작된 <고귀한 사람들>은, 조중친선의 분위기 속에 신생국가 중국으로부터 통찰한 내용을 소설세계의 진작(振作)으로 이어갈 많은 여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태준에게 중국이라는 공간은 혁명 이후 도달해야 할 새로운 국가의 미래였고, 국제주의적 연대를 모색하고 동서 진영이 아닌 인류애 실현의 거점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꿈꾼 자주국가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한 가능성의 세계였던 셈이다.

■ 참고 문헌

- 이태준, 「해방전후」, 『문학』 창간호, 1946.7.
- 이태준, 『농토』, 평양, 로동당출판사, 1947.
- 이태준, 『위대한 새중국』, 평양, 국립출판사, 1952.
- 이태준, 『신문장강화』, 박진숙 편, 현대문학사, 2009.
- 이태준, 『첫전투』, 평양, 문화전선사, 1949.
- 이태준, 『혁명절의 모스크바』, 조소문화문고, 조소문화협회, 1950.
- 이태준, 『소련기행』, 평양, 북조선출판사, 1947.
- 이태준, 『고향길』, 전선문고 4권, 재일본조선인교육자동맹 문화부, 1952.
- 이태준, 『이태준문학전집』 전18권, 깊은샘, 2001.
- 이태준, 상허학회 편, 『이태준문학전집』, 전7권, 소명출판, 2015.
- 강진호, 「한 근대주의자의 신념과 좌절-해방후 이태준 소설의 변모양상」, 『돈암어문학』 17, 돈암어문학회, 2004, 191~212쪽.
- 권성우, 「이태준의 기행문 연구」, 『상허학보』 14, 상허학회, 2005, 187~222쪽.
- 김윤식, 『한국현대사실주의문학연구』, 문학과지성사, 2001.
- \_\_\_\_\_, 『해방공간 한국작가의 민족문학 글쓰기론』, 서울대출판부, 2006, 1~384쪽.
- \_\_\_\_\_,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출판부, 1989, 1~290쪽.
- 김재영, 「'농토' 연구」, 『상허학보』 1, 상허학회, 1993, 366~389쪽.
- \_\_\_\_\_, 「월북 이후 이태준의 문학활동과 '먼지'의 문제성」, 『민족문학사연구』 10, 민족문학사학회, 1997, 324~344쪽.
- \_\_\_\_\_, 「한국전쟁기의 이태준」, 『상허학보』 13, 상허학회, 2004, 131~149쪽.
- 배개화, 「당, 수령, 그리고 애국주의」, 『한국현대문학연구』 37, 한국현대문학회, 2012, 36~204쪽.
- \_\_\_\_\_, 「문학의 희생」, 『한국현대문학연구』 3, 한국현대문학회, 2011, 247~280쪽.
- \_\_\_\_\_, 「북한문학자들의 소련기행과 전후 소련의 이식」,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364~398쪽.
- \_\_\_\_\_, 「이태준: 해방기 중간과 문학자의 초상」, 『한국현대문학연구』 32, 한국현대문학회, 2010, 473~511쪽.

- 배개화, 「탈식민지 문학자의 소련기행과 새 국가 건설」, 『한국현대문학연구』 46, 한국현대문학회, 2015, 155~187쪽.
- \_\_\_\_\_, 「이태준, 최대 다수의 행복을 꿈꾼 민주주의자-해방 이후 이태준의 사상과 문학」, 『상허학보』 43, 상허학회, 2015, 207~244쪽.
- 신형기, 「해방 이후 이태준」, 『상허학보』 5, 상허학회, 2000, 63~81쪽.
- \_\_\_\_\_, 『해방 직후의 문학운동론』, 제3문학사, 1988, 1~226쪽.
- \_\_\_\_\_, 『해방기 소설연구』, 태학사, 1992, 1~258쪽.
- \_\_\_\_\_, 『분열의 기록』, 문학과지성사, 2014.
- 유입하, 「북한 초기문학과 ‘소련’이라는 참조점」, 『한국어문학연구』 57,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11, 153~184쪽.
- \_\_\_\_\_, 「월북 이후 이태준 문학과 ‘48년질서」」, 『상허학보』 39, 상호학회, 2013, 5~32쪽.
- 이행선, 「해방공간, 소련·북조선기행과 반공주의」, 『인문과학연구논총』 4-2, 명지대 인문과학연구소, 2013, 65~106쪽.
- 임유경, 「‘오빠꾼’과 ‘조선사절단’, 그리고 모스크바의 추억-해방기 소련기행의 문화정치학」, 『상허학보』 27, 상허학회, 2009, 229~270쪽.
- 정문상, 「냉전기 북한의 중국 인식」, 『우리어문연구』 40, 우리어문학회, 2011, 169~193쪽.
- 정중현, 「탈식민지 시기(1945~1950) 삼팔선 표상의 지정학적 상상력-해방 후 이태준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39, 한국문학연구학회, 2009, 423~460쪽.
- 조윤정, 「이태준 문학의 심상지리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6, 1~102쪽.
- 마르쿠스 슈뢰르, 『공간, 장소, 경계』, 정인모·배정희 공역, 에코리브르, 2010, 1~415쪽.
- 슈테판 쿤첼 편, 『토폴로지』, 이기홍 역, 에코리브르, 2010, 1~519쪽.
-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공역, 대운, 2007(개정판), 1~328쪽.
- 테어도르 휴즈, 「냉전 세계질서 속에서의 ‘해방공간’: 해방 직후의 남북한 문학」, 박병욱 역, 『한국문학연구』 2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5, 3~30쪽.
- 테어도르 휴즈, 『냉전시대 한국의 문학과 영화』, 나병철 역, 소명출판, 2013, 1~372쪽.

■ Abstract

**Sense of place from the writings of Lee, TaeJun  
after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d space and  
meaning of space in writing -

Yoo, Imha

This study explored the concept of 'experienced space' through the analysis of context from Lee Tae-Jun's writings after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Lee Tae-Jun's writings revealed the nature of the Sino-Soviet experience and how it changed, with his travelogues "Trip to the Soviet Union"(1947), "Moscow on Revolution Day"(1950), "Trip to the China-Great New China"(1952) and other works capturing life at this historical turning point. These three travelogues were particularly insightful as they were published at the transitional time after his defection to North Korea and before he ended his life as an author.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Lee Tae-Jun joined leftist groups and participat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ountry in the North through involvement in politics. His literature from this time reflected his ideology regarding complete liberation and independence and the establishment of united nation-state. during his two trip to the Soviet Union, Lee Tae-Jun was impressed by the cultural policies of a multiracial country and found the new world accomplishments to be "a triumph of the system". Furthermore, he felt that it was necessary to have solidarity regarding internationalism based on his trip to the China. He desired that the people of the world should escape from slavery by way of liberation from the old structures. He felt that it was the people who would be the leaders and builders of the future for his country. This study addressed the

implied meaning from what was written on the themes of "Nongto(Farmland)" and "Noblemen" within the Sino-Soviet experience.

Key words : Lee, TaeJun, defection to North Korea, experienced space, sense of place, reproduction of space, decolonization, triumph of the system, construction of a new country, Trip to the Soviet Union, Trip to the China

투고완료일 : 2015. 11. 22. 심사완료일 : 2015. 12. 14. 게재확정일 : 2015. 12. 20.

